한국 불교문화 세계 알린 APEC 정상회의

APEC 2025 KOREA

불국사서 김혜경 여사 주최 배우자 행사
종정 성파 대종사 찻잔 작품으로 차시음
진우 스님, 선명상 '자비·평화' 가르침
CEO 서밋 만찬에 선재 스님 사찰음식
간화선 체험…법회·전시로 성공 기원



10월 31일 불국사에서 김혜경 여사 주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경제체 배우자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통한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전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찻잔 작품으로 차를 마시는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여수령·김내영 기자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문화외교의 장이었다. 특히 불교계는 법회로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한 데 이어, 불국사에서 공식 외교 행사가 열리고 특별 만찬에는 사찰음식이 선보이는 등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가장 주목받은 행사는 10월 31일 불국사에서 김혜경 여사 주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경제체 배우자 행사다.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와 캐나다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 뉴질랜드 아만다 럭슨 여사, 필리핀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 싱가포르 루즈루이 여사, 대만 린원쉬엔 영애, 태국 타나논 니라밋 여사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함께해 참석자들에게 한국불교와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불국사는 창건 이래 1300여 년 동안 토함산 너머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동해의 물결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해 온 기도도량"이라며 "불국사의 솔향기와 바람소리는 인간과 자연, 나라와 나라가 서로 어우러지는 조화와 상생의 울림이 될 것"이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며 "그 인연법의 가치를 함께 나눌 때 이 지역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진다"고 말했다.

존재의 관계성과 하나됨을 자각하게 하는 '선명상' 수행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우리는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내면에서 자연스레 자비심이 피어난다"며 "그 자비의 마음이 널리 확산될 때 이웃과 나라, 나아가 세계는 평화로움 속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불국사를 찾은 인연이 각자의 내면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여는 뜻깊은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스님들의 문화유산 해설을 경청하며 불국사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정신과 정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무설전에서 진행된 한식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콩을 주재료로 한 다식 만들기가 진행됐다.

행사는 진관사 스님들이 직접 진행했다. 다식 지도를 맡은 계호 스님은 "콩다식은 삶은 콩을 곱게 찧어 꿀과 섞어 만든 전통 다식으로, 예로부터 궁중의 진연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음식"이라며 "콩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을 지켜 주는 자연의 선물이며, 소박함 속에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직접 다식을 만들며 "천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다도 체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녹차를 시음하며 깊은 맛과 향을 느꼈다. 특히 찻잔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직접 빚은 작품으로 의미를 더했다.

김 여사는 "천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여사와 참가자들은 복주머니를 든 채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를 배경으로 공식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행사 장소로 불국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불국사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이상을 잇는 가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서, 당시 우리 선조들이 추구해 온 이상세계인 불국(佛國)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한 철학이 깃든 곳"이라며 "그런 곳을 APEC 회원 경제체 배우자들이 찾은 것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연결하는 상징적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월 30일 경주 황룡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만찬에서는 사찰음식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만찬은 경상북도가 주최한 공식 환영 행사로, 세계적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식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네츄르먼트가 기획·연출한 특별만찬에서는 제철 식재료와 전통 발효식품으로 만든 3가지 코스 요리와 발우 한상차림, 후식 등이 선보였다.

특히 한상차림은 발우를 모티브로 제작된 그릇에 담긴 연자밥과 배추무된장국, 홍시배추김치, 연근선, 김부각 등으로 구성돼 호평을 받았다. 후식으로는 다식과 주악, 송편, 송차 등이 제공됐다.

선재 스님은 '비움의 미학과 공존의 철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음식의 본질적 가치와 자연에 대한 존중을 담은 사찰음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양은 온 우주의 생명을 맑고 건강하게 해 주는 식사법"이라고 소개했다.

홍성미 네츄르먼트 대표는 "사찰음식은 한국의 정신문화와 지속가능한 생태철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만찬을 통해 한국 식문화의 철학적 깊이와 문화적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10월 28일 교내 선센터에서 APEC 참가국 CEO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불교 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에서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1개국 100여 명이 참여했다.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이 지도법사를 맡아 실참과 질의응답을 이끌었다. 또 다도와 발우공양 체험도 이뤄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불 스님은 "한 번의 체험이 완전한 깨달음을 주지는 않더라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법석과 문화행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종사는 10월 25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10월 26일 범어사에서 '2025 팔관회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불국사박물관(관장 종천 스님)은 12월 7일까지 특별전 '솥의 기억, 감춰진 염원'을 열고 고려 불교공예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린다. 경주ICS(회장 황경환)도 11월 1일까지 경주IC휴게소 갤러리에서 '경주 APEC 성공 기원 선서화전'을 열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을 비롯한 100여 점을 선보였다.

이처럼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불교가 평화와 상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문화외교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 **사진 제공=조계종**


진관사 스님들의 다식 체험 지도. **사진 제공=조계종**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사진 제공=네츄르먼트**


CEO 서밋 만찬의 발우 한상차림. **사진 제공=네츄르먼트**



10월 28일 동국대에서 열린 간화선 체험프로그램.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2025. 11. 29(토) 10:00~18:00 동국대학교 본관 남산홀(430석)

주최 밝은사람들연구소
후원 조계종 미래본부, 안국선원
협찬 도서출판 운주사

참가비 없고, 당일 현장 접수합니다.
문의 010-2391-5629

좌 장 한자경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발표1 초기불교 : 정준영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발표2 선 불 교 : 월암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발표3 불교·명상 : 미산 스님 (김완두,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임성민 (데이터리퍼블릭 대표)
발표4 종 교 학 : 성해영 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발표5 심 리 학 : 권석만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종합토론

- 유튜브 채널 "밝은사람들연구소"에서 지난 학술연찬회 강연 영상 시청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하시면,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

밝은사람들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